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93예수사랑 큰잔치, 오늘 오전 7, 9, 11시 오후 1, 3, 5, 7시 예배

·환영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3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역의 터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는 '내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그러나 조금은 강청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초청되신 분들 중에는 평소 기독교에 대하여 회의적이시던 분, 혹은 기독교를 향하여 비판하시던 분, 예수 '예' 자도 못들어 보신분들도 계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길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만 생각해 봅시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닫혀진 마음들로 굳어진 얼굴들, 풍요속에 오히려 빈곤한 현대인들의 삶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교회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친구, 가족, 가까운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미 이 답을 얻은 성도들의 생활에는 평화가 있으며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성심껏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훨씬 전부터 친히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을 짝사랑해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교회를 한 마디로 소개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성령의 강력하신 통치가 있는 모임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표 아래 성령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경공부와 이상적인 조직을 가진 교회, 복한 선교와 복방선교를 지향하며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로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앞서가며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충현교회의 가족이 되셔서 열심히 교회생활에 참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당신 생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소망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3년 10월 17일

당회장 신성종 목사

오늘은 우리 충현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는 행사 가운데 한 가지인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다. 이 잔치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잔치로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리는 날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날이다. 그 동안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 날이 오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왔다. 우리의 노력이나 기대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리라는 확신은 우리의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만큼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고 보람된 날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편 충현의 성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의 친절을 다하여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생의 대 변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도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충현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등록하는 절차, 방법, 그 후에 우리 교회에서의 활동 등을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이번 기회가 우리의 참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마음 속에 영접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아래의 일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새벽 5시의 새벽기도회와 오전 7, 9, 11시 오후 1, 3, 5, 7시의 예배가 있다.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만남의 장소에서 약속된 사람을 만납니다.
2. "환영합니다" 카드를 기록합니다.
3. 맨 앞장은 제출하고 뒤의 두 장은 보관합니다.
4. 환영스티커를 가슴에 붙입니다.
5.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6. 결단의 시간에 가지고 계시던 카드를 안내위원에게 제출합니다.
7. 나가실 때 기념선물(참쌀떡)을 받으십시오.
8. 다음 주에 다시 나옵니다.
9. 각 교구별로 준비된 환영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등록절차는 이렇습니다

1. 오늘 기록한 "환영합니다" 카드의 뒷부분에 있는 결신자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

가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손드세요"할 때에 손을 든 후에 옆에 기다리고 있는 안내위원에게 카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카드를 제출하신 후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집으로 연락하고 심방하여 등록됨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때에 등록번호를 부여해 드립니다.

3. 등록이 확인된 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에 대해서는 3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 기존 구역에 편성되어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리한 시간을 택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이렇습니다

- 새벽 예배 - 매일 새벽 5시 30분, 갈릴리홀
- 주일 예배 - 매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 분당
- 주일 저녁 예배 - 매 주일 오후 5시, 분당
- 수요일 예배 - 매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분당
- 금요일 예배 - 매 금요일 오후 8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유대인들의 삼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19:1).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1. 고난에 관한 예언(17-19)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으신 다음 사흘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과 17장에서 이미 두 번이나 장차 십자가를 지실 수난에 대한 예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본문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환난이 다가올테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자꾸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여인의 이기적 간구(20-21)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수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마 27:56; 막 15:40).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가는 했지만 첫째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살로메는 믿고 있었다고 하는 점은 칭찬할만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의 영광을 구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살로메의 명예를 구하는 이기적인 간구가 우리의 기도생활의 모습입니다.

3. 예수님의 응답(22-23)

살로메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 구하는 아들들을 오히려 온유한 어조로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지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지식이 없으면 살로메처럼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로메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떠실 수 있느냐"(22절)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다쳐온 예수님의 수난 때에 자신들이 배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갈차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들에 도망갈 생각에 대해서는 말씀을 말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잔을 떠실 것, 그들에 머지 않아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알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짖은 이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회에는 내가 줄 것이 없다.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적러배짖을 할 것 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좋은 자리에

앉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이 납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며, 주

충현강단



명예를 구하는 기도

(마 20:17-28)



신 성 종

<목사·당회장>

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막 10:45)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4. 그 결과(24-28)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좀 나은가 하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히 여겼다고 했는데 사실 분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부탁하든, 예수님이 로비활동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열 제자들은 '잘못되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좋은 자리 다 빼앗겼구나' 생각하고 분히 여겼습니다. 그들도 지금까지 누가 높으나 하는 싸움에 개입했고, 유월한 것을 좋아했고, 교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만큼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유다서 6절을 보면 교만이 이파와 화와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밖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듯 가장 무서운 오래된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없애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속적 표준과 주님의 표준의 차이점을 봅니다. 세상의 표준은 패망인들의 집권자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입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표준은 그리스도인, 즉 섬기는 자입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표준과 주님의 표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표준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참으로 위대하고 으뜸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 제일 많이 봉사하는 사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5. 결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8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편으로 보였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사십과 죽음의 모든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를 섰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많은 사람의 에서 '의'라는 말은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한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말은 교회의 개념이 있는 말입니다. 당지의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에는 우선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노예문서를 태워버린 다음에 노예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대속물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의 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대신 대속물이 되신 희생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 안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교만의 해독을 잘 알고 계시기에 섬기고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를 하다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섬기는 삶살아야 합니다. 또 참된 지도자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희생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생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살로메나 요한과 야고보처럼 세상적인 것이나 자기 가족의 안일만을 위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속적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 여자



내 아내는 5분 여자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른다. 때때로 여자들은 밖에 나가려면 30분에서 한 시간까지 화장을 하고 준비를 할 시간의 단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 아내는 설마 금발! 남편 때문에 5분 안에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 마치 비장대기라도 되듯이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 주를 전 할 줄에 화장까지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파출부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다.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실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한다. 내 아내는 누구보다 빨리 '오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다 남편 혼란 덕이지요'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고맙습니다. 다 남편 잘 전한 덕이지요' 하고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글 / 신 성 종 목사



새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새가족을 위한 전담 새가족위원회에서 세심히 돌볼터

김 용 기 <목사, 새가족위원회, 10교구 지도>

새가족을 환영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가장 귀한 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초청을 받고 우리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충현교회의 귀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당당한 식구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요 주인이요, 자랑스런 충현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 교회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두번 교회에 나오셨다가도 다시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생활에 계속적인 흥미를 유지하지 못하고 곧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이유로 교회에 나왔으나 누군가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큰 교회에 와서는 더욱 더 소외감이 더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통한 삶의 의미와 가치(넓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새가족위원회'야말로 이상의 두 가지를 충족시켜 드리는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 - 끝까지 새신자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새가족 위원회 전문적인 양육 위원들이 소수의 인원을 반으로 편성해서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위해 80여명의 숙련된 교사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 -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알고 싶지만 친절히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두분의 지도 교역자와 세분의 장로님들이 이하 귀한 하나님의 제직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기간(길어야 4주 코스)으로 새신자 교육을 마치는 것에 비해 우리 충현교회는 전통적으로 새가족들을 친절히 자세히 교육시켜 드리기 위해 장장 6개월이라는 긴 기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수료하면 필요한 신앙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배워 참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자리잡을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위원회 양육교육 프로그램

1.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26주 과정)

(1) 구원의 과정 - 이 과정을 통해 구원의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

(2) 성장의 과정 - 구원받은 성도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3) 성숙의 과정 - 더욱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풍성한 삶을 체험하는 과정

(4) 능력의 과정 - 성령을 통한 죄와 세상과 육신의 삶을 극복하는 과정

(5) 봉사의 과정 - 이제는 자립하여 나를 탈피하여 교회와 사회에 환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학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다른 교육기관과 연결이 이루어져서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

2. 적응반 교육(4주)

일반 교회에서 제직으로 봉사하시다가 여러 이유로 충현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 마련된 4주 프로그램이다.

(1) 제1주 : 충현교회의 설립, 성장배경, 전통, 교회적 책임

(2) 제2주 : 교회조직과 해설

(3) 제3주 : 교회내 견학

(4) 제4주 : 기도원 방문, 기도회

* 최소한의 기간의 교육을 통해 교회에 적응해서 곧바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려서 하늘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케 한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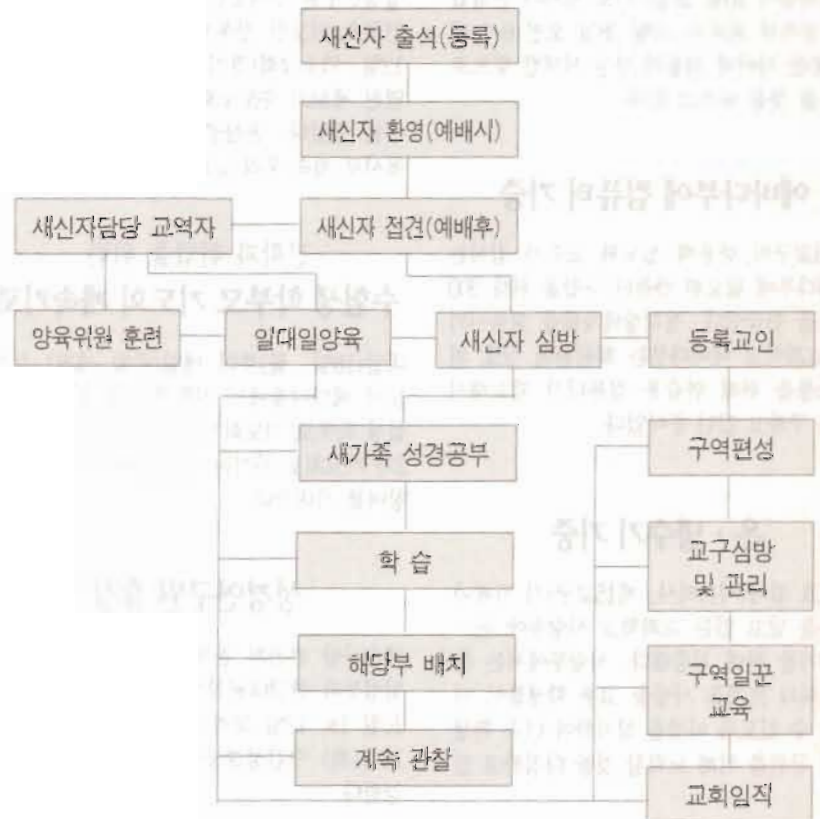
다음주 집회시간은 10시 30분 장소는 갈릴리움(본당 지하1층)입니다. 본 집회 참석을 위해 본당 앞 새가족 위원회실에 오시면 항상 언제나 친절할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새가족위원회 양육부는 새신자를 위한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는 새신자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갈릴리움

새신자양육 체계도



◆ 이 사람을 만나보니 ◆

그리스도의 편지 526통 보낸 이명희 집사



지난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100통 이상 보낸 사람에게

시상하는 시간

이 있었다. 100통, 200통, 300통 이상 보낸 사람에게 시상하는데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은 526통을 보낸 이명희 집사(제10교구)였다. 이명희 집사를 잠시 만나 보았다.

▷ 526통을 일주일에 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텐데요.

▶ 보통 일주일에 3~4일은 오후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7시까지 써야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사랑받는 아내가 되세요'라든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등 한마디의 말을 씁니다. 혼자서는 벅차서 남편(정태두 집사)이 도와주지요. 저의 집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위하여 방을 하나 정하고 그곳에 편지

를 정리하여 놓고 기도하며 쓰고 있습니다. 잠은 직장에 가는 차 안에서 자는 수가 많아요.

▷ 500여명의 대상자를 정하는데도 쉽지가 않았을텐데요.

▶ 남편의 직장(태흥금속, 부천시 원미동) 거래처가 주 대상자입니다. 동맹 업종에서 오랫동안 일하다보니 10년이상 거래한 곳도 많지요. 큰 회사는 관리, 사무직 직원들과 그 가족들, 회사 주변의 친지들이 대상자입니다. 그중 주부가 100여명, 청년층이 200여명, 장년층이 200여명 그리고 학생과 노년층입니다.

▷ 반응은 어떤가요?

▶ 요즘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주로

편지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고 그 중에는 보내준 편지를 책상서랍에 잘 간직하고 있다면서 그 다음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격려가 되기에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 어떤 마음으로 했나요?

▶ 성도는 전도를 해야 하는데 나가서 전도할 시간은 없고 편지로나마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람들도 편지를 보내주니까 더욱 신뢰가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면 개인도 좋고 교회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명희 집사>

심령부흥회 은혜 중에 마쳐

연일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새벽을 깨운 새벽기도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사랑 큰잔치 맞아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사회로 힘찬 구호제창과 함께 막을 올린 이번 부흥회는 첫 시간부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강사 김장환 목사(수원침례교회 담임, 극동방송 대표)는 첫째날 '사랑이란', 둘째날 '생명이란', 셋째날 '신앙이란', 넷째날 '제자란'이라는 제목으로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뜨겁게 증거되는 말씀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조국과 교회가 오청하는 사람은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생명의 사람, 교회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바쳐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 그리고 제자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되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빛의 사자들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이다. 이번 부흥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흠뻑 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마음껏 빛을 발할 일들만 남겨놓고 있다.

우리 중헌의 성도들은 먼저 예수사랑 잔치에 초청된 태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나아가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의 미전도족들을 향해 아낌없이 먼저 받은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월 21일에서 28일로 경로대학, 야외학습 일자변경

10월 21일로 예정된 경로대학 대전 엑스포 야외학습이 10월 28일(목)로 일자가 변경됐다. 등록된 회원은 10월 28일 오전 6시~6시 30분 사이에 서울역 광장 시계탑 밑으로 모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에바다부에 컴퓨터 기증

제13교구의 한용백 성도와 도수자 집사는 에바다부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현금했다. 청각장애자들을 교육시키는 교회학교 에바다부는 회원들의 상호의 사소통을 위해 연습용 컴퓨터가 필요해서 이를 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온·냉수기 기증

홍이표 집사(치과의사, 제15교구)가 자페아 교육을 맡고 있는 교회학교 사랑부에 온·냉수기를 한대 기증했다. 사랑부에서는 홍 집사의 뜨거운 사랑을 고루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설치하여 더욱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도노회서 목사안수 윤삼중, 장우천 강도사

우리 교회의 교육강도사로 장년2부 지도와 성경연구원 부지도인 윤삼중 강도사와 교육연구소 지도인 장우천 강도사가 지난 10월 12일, 덕소교회(경기도 남양주군 소재)에서 열린 제44회 수도노회 정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윤삼중·장우천 목사는 교육목사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시무하게 된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 계속기로

내일(18일, 월)부터 매일(주일 제외) 오전 10시 베다니홀에서 진학과 취업을 위한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가 시작된다. 올 들어 제2차 기도회로 가지는 이 시간에 온 학부모의 참여를 기대한다.

성경연구원 휴강

예수사랑 큰잔치 관계로 오늘 예정된 교양양성부와 찬양대원양성부가 휴강하며, 또한 10월 18, 19일 교역자 수련회 관계로 10월 19일(화) 주간성경공부와 교사양성부도 휴강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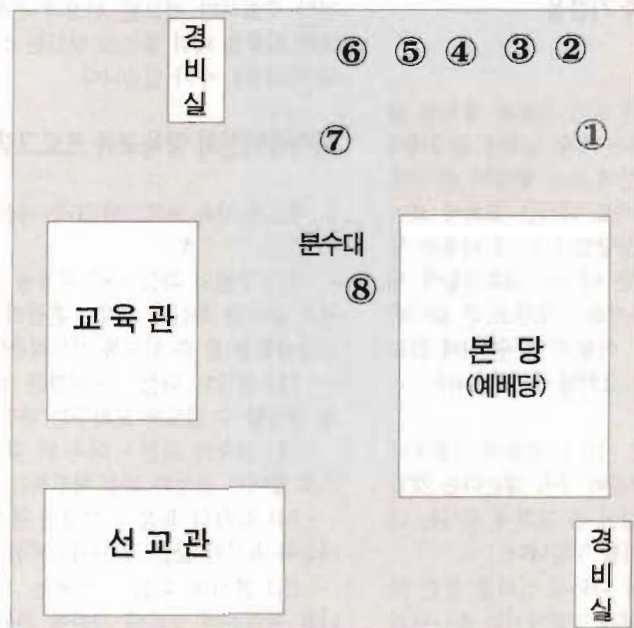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18일(월) 교회성장을 위한 특별기도 세미나 강의(중흥교회).
18일(월)-20일(수) 황동노회 남, 녀 전도회 연합대성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18일(월)목회자 세미나 강의, 20일(수) 장애인 복음화대회 설교, 22일(금)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2. 범한 죄를 회개하여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여한 새가족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4. 93장애인 복음화대회에 세우신 강사님들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소서.
5. 새가족을 주의 사랑으로 잘 돌아보는 구역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중헌교회 배치도 및 만남의 장소〉

- 본당 앞의 번호는 만남의 장소 번호입니다

봉
사
관



경
비
실

주
차
장

- ① 1, 8, 15교구 ② 2, 9, 16교구 ③ 3, 10, 17, 22교구 ④ 4, 13, 18, 23교구
⑤ 5, 12, 19교구 ⑥ 6, 11, 20교구 ⑦ 7, 14, 21교구
⑧ 교회학교(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

생명을 구하는 값진 체험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헌혈 : 10월 24일, 본당앞 광장에서

교회는 사랑실천 운동본부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자 요청해 오며 따라 이에 동참키로 했다.



♥ 헌혈에 대하여

우리 몸 속에는 체중의 약 8%에 상당하는 혈액이 돌고 있는데 신비하게도 이 혈액의 10%정도는 만일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이 다. 그리고 인체의 혈관속에는 전체 혈액량의 절반 밖에 없고 나머지는 혈관 밖 조직에 액분으로 퍼져 있다가 출혈이 생기면 즉각 혈관속으로 모여들어 불과 1.2시간이면 완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 약간의 출혈이 있어도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다. 따라

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은 4,800cc 정도의 혈액이 있는 셈인데 이중 320 - 400cc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인체에서는 매일 50cc 정도의 혈액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헌혈한 사람이 헌혈대를 떠나기도 전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남자는 체중이 50KG이상, 여자는 45KG이상으로 정상혈압(최고 100 - 200mmHg, 최저 60 - 100mmHg)인 16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헌혈자에게 주는 혜택

1) 혈액의 예치, 헌혈증서 발급
모든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사람도 수혈이 필요할 때 혈액형에 관계없이 헌혈량 만큼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무료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2) 건강 진단의 기회

체중, 혈압, 혈액형, 혈액비중검사는 헌혈전에 실시하고 헌혈후 Rh 음성혈액형, B형 간염항원, C형 간염항체검사, 간기능검사(SGPT)를 일차적으로 실시하여 B형, C형 간염검사가 양성이거나 SGPT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SGOT·총단백·알부민·콜레스테롤·요소질소 A/G비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해준다.

- 일시 : 1993. 10. 24(주일)
오전 8:00 - 오후 3:00
- 장소 : 본당 앞 광장
- 대상 : 전교인